강진군수

강진원 군수 민주당 복당 여부 최대 변수

강진군수 선거의 관전 포 인트는 강진원 군수의 민주 당 복당 여부다. 지난 대선 때 노골적으로 안철수 국민 의당 후보를 지지한 탓에 복 당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 고 있다. 복당이 무산되면





이승옥





곽영체

강진원 강진군수 전 여수부시장 전 기획실장 도의회 위원장

현직 프리미엄에도 불구하 고 무소속으로 힘겨운 선거전을 치러야

맞서 이승옥(61) 전 여수부시장, 장경록 (61) 전 강진군 기획정책실장, 곽영체(70)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등 3명이 군수 후 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.

강 군수는 23년간 중앙부처와 전남도청 의 주요 보직을 거친 행정전문가로 군정 을 안정되게 운영했다는 평가다. 특히 강 진을 스포츠 테마파크로 육성하고, 가우 도를 짚트랙 수학여행지로 각인시키는 등 남다른 성과를 보여줬다. 현직 프리미엄 과 탄탄한 지지기반이 강점으로 꼽힌다. 다만, 지난 대선 당시 현직 단체장 신분으 로 손가락 기호를 표시한 혐의로 민주당 이 직접 고발한데다, 민주당 후보군들의 반발도 거세 복당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.

민주당에선 이승옥 전 여수부시장과

할 것으로 예상된다. 3선에 도전하는 강진원(58) 강진군수에 장경록 전 강진군 기획정책실장이 나선 다. 이 전 부시장은 탁월한 행정능력이 장 점이다. 전남도 주요 보직을 거치는 등 다 양한 행정경험을 쌓았고, 각계 인맥도 풍 부하다.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.

장경록

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장 전 실 장은 40여년에 이르는 풍부한 행정경험 을 무기로 바닥을 다지고 있다.

국민의당에선 곽영체 전남도의원이 출 마 채비를 마쳤다. 재선 도의원으로 현재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고, 강진교육장을 지 내는 등 행정과 의정을 아우르는 관록이 두드러진다.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현안에 앞장서 온점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.

초·중·고를 모두 강진에서 나오는 등 탄탄한 지역기반과 인지도도 강점이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 /강진=남철희기자 choul@kwangju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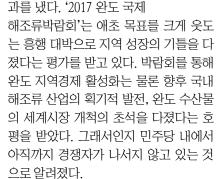
완도군수

재선 노리는 현 군수에 3~4명 도전장

신우철

완도군수

신우철(64) 완도군수가 재선을 노리고 있다. 신 군 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3년 의 짧은 재임기간 동안 지 역민을 위한 수산정책을 마 련하고 국제해조류박람회 를 개최하는 등 굵직한 성



국민의당에선 박현호(66) 전남도의원 과 김신(54) 전 완도군의원의 출마가 예 상된다.

박 의원은 완도·무안·곡성·영광군 부 군수를 지낸 공직자 출신으로 풍부한 행 정경험이 강점이다. 또 열정적인 의정활 동도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. 육사 출신의 강한 리더십이 강점이 며, 인지도가 높아 신 군수의 대항마로 주 목받고 있다.







천제영

박현호 김신 도의원 전 군의원 전순천부시장

김 전 군의원은 전남청년회의소(JC) 회 장과 전남서부어류양식협회 ghl장을 맡 는 등 사회활동이 활발하다.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선에서 1%포인 트 차이로 분루를 삼킨 김 전 의원은 오랜 기간 바닥 민심을 다지는 등 일찌감치 지 방선거를 준비해왔다. 강성 이미지 탓에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 적이 일고 있다.

천제영 전 순천부시장도 지역에서 꾸 준히 거명되고 있다. 천 전 부시장은 전 남도 환경정책담당관, 동부지역본부 본 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환경・행정 전 문가다. 환경직 출신으로 전남도 첫 부 이사관(3급)과 부시장에 오르는 등 실력 과 경륜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 /완도=정은조기자·전남주재총괄본부장

해남군수

군정 비리 무주공산 ··· 전·현 지방의원–관료 경쟁

윤재갑

해남군정은 비리로 얼룩 졌다. 이 때문에 해남군수 의 가장 큰 덕목으로 '도덕

성'이 꼽힌다. 박철환 해남군수는 지난 5월 공무원 인사평가를 조 작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

받아 군수직을 잃었다. 앞 서 2011년 김충식 군수, 2008년 박희현 군수가 비리로 군수직에서 물러나 행정

공백 사태를 빚었다. 박 군수의 실형으로 해남군수 선거는 '무주공산'이 됐다.

전·현직 지방의원과 관료 출신들이 군수 도전에 나섰다.

민주당에선 윤재갑(62) 전 해군 군수 사령관, 이길운(51) 전 해남군의원이 거 론된다.

윤 전 사령관은 무소속으로 2차례 총 선에 도전해 낙선했다. 총선을 치르면서 인지도를 끌어올린 게 군수 도전의 동력 이 되고 있다.

3선의 이 의원은 군의회 의장 출신으 로 해남중・고 총동문회 부회장 등을 맡 으며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와 밑바닥 정서를 잘 안다는 게 강점이다.

국민의당에서는 명현관(55) 전남도의



명현관

부장이 뛰고 있다.





이길운 윤광국 전 군의원 전 호남본부장

전 사령관 도의원 원과 윤광국(58) 전 한국감정원 호남본

>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명 의원은 후 보군 중 인지도면에서 한두 발짝 앞서 있 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 시각이다.

10대 전반기 의장과 경제관광문화위 원장 등 도의회 요직을 두루 거치며 쌓은 풍부한 의정경험이 돋보인다.

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팔을 걷어붙 이는 등 '일 잘하고, 약속을 잘 지키는 정 치인'이란 호평을 듣고 있다. 깨끗한 이 미지에 군 전역을 아우르는 높은 인지도 와 조직력도 강점이다.

윤 본부장은 민화식 전 군수의 처남으 로 인지도와 조직력이 있고, 해남윤씨 지 지세도 있어 주목된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 /해남=박희석기자 dia@kwangju.co.kr

진도군수

후보 8명 난립… 이동진-박연수 리턴매치 주목



이동진

진도군수

장 등이 나선다.



전 군수

진도군수 선거는 의외로 치열하다. 전남

3선을 노리는 이동진(72) 진도군수와

박연수(69) 전 진도군수의 리턴매치가 주

목된다. 여기에 박인환(67) 전 선관위 부

이사관, 장일 (61) 전남도의원, 한기민

(62) 전 목포경찰서장, 김희수(62) 전 진도

군청 농산유통과장, 이양래(60) 전 진도

읍장, 오판주(63) 전 진도군 문화예술과

전남개발공사 사장 등 전문경영인 출

신인 이동진 군수는 재임 기간 군정을 안

정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

나서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

를 받고 있다. 3선 연임을 통해 진도 성장

의 발판을 확실히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

태우고 있다. 다만, 3선에 대한 거부감과

민주당 내에서는 박인환 전 부이사관

고령인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.

에서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군이 형성됐다.



박연수

박인환 전 부이사관

장일

도의원







김희수

전 경찰서장 전 농산과장

이 이 군수에게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 다. 선관위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참신성 은 있지만, 지역활동이 부족해 인지도가 낮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.

국민의당에서는 박연수 전 군수가 재

기를 노리고 있다. 지난 선거에서 2500여 표 차로 이 군수에게 석패한 이후 지역기 반을 공고히 하며 와신상담하고 있다. 도의원 3선인 장일 의원은 주요 상임위 원장을 두루 거쳤다. 진도 출신 첫 도의회

는 등 정치력과 관록도 두드러진다. 한기민 전 서장도 풍부한 공직경험과 각계 인맥 등을 바탕으로 진도 재도약을 이끌겠다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. 합리적 성품에 강한 추진력, 지역에 대한 열정이

부의장과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내

돋보인다는 평이다. 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 /진도=박현영기자 hypark@

영암군수

군수·지방의원·공직자 출신 대거 출사표

전동평

영암군수

전동평(56) 현 군수의 재선 도전에 맞서 지방의원과 공 직자 출신 등이 대거 출마를 준비중이다. 민주당에서는 전 군수에 맞서 김연일(54) 전 남도의원이 거론되고 있다.

전 군수는 국립바둑박물관 유치 등 영암 관광자원 개발

을 통한 농업·관광활성화를 이끄는 등 지 역 발전의 기틀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. 3선 도의원을 지 낸 전 군수는 탄탄한 조직력에 현역 프리 미엄까지 갖추면서 재선 도전 성공을 자신 하고 있다. 현재 전남도의회 경제문화관 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영암군 의회 의장 등을 지내며 풀뿌리 의정활동 을 통해 바닥을 다져왔다.

국민의당에서는 김철호(66) 영암군의 원과 박소영(62) 전 목포시 기획관리국 장, 박영배(69) 영암군의회 의장, 이하남 (72) 영암군의원, 최영열(54) 전 전남도 종 합민원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.

재선의 김 의원은 전남도당 대변인을 맡는 등 당내 활동을 활발히 해왔으며, 유 일한 여성 후보군인 박 전 국장은 목포시 관광기획과장, 회계과장, 부시장 직무대 리 등 주요 요직을 지내는 등 풍부한 행정





김연일

도의원

박영배

군의회의장



김철호 군의원

박소영





최영열 이하남 군의원 전 민원실장

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. 박 의장은 6선 의 군의원을 지냈고, 4차례 의장을 맡는 등 24년 간의 풍부한 의정 경험이 강점이 고, 이 의원은 학산·삼호·시종·신북면장 등을 지내는 등 지역을 잘 아는 인물로 알 려졌다. 최 전 실장은 지역구 박준영 국회 의원을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데다 조직력과 인지도 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는 평가다.

/ 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 /영암=문병선기자 moon@kwangju.co.kr

무안군수

현 군수 낙마 전·현 지방의원 등 6명 치열한 각축전



전군의회의장 군의회의장

김산

가 될 전망이다.



이동진

구 오를지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될 것으

로 예상된다. 무안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

가 낙마한데 따른 지역사회 자존심 회

복, 흐트러진 공직기강 재정립 등이 화두

민주당에서는 김산(60) 전 무안군의회

의장, 이동진(59) 무안군의회 의장, 정영

덕(54) 전남도의원 등 지방의원들이 공

재선의 정영덕 의원은 전남도의회에

서 지역내 최대 현안인 무안공항 활성화

와 호남고속철(KTX) 무안공항 경유 등

안건을 주로 다루며 지역민의를 대변해

이동진 의장은 무안군상공인협의회

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

천장을 놓고 경쟁할 전망이다.





도의원







임재택 김호산 전 조합장 전 초당대교수 사업단 대표

김철주 무안군수가 비리 혐의로 구속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. 돼 사실상 재도전이 좌절됐다. 전·현직 김산전 의장도 2차례 군의원을 지낸 경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'무주공산'에 누 력을 앞세워 정치적 행보를 넓히고 있다.

국민의당에서는 나상옥(64) 전 목포무 안신안축협조합장, 임재택(66) 전 초당 대 교수, 김호산(54) 황토랑고구마 클러 스터사업단 대표 등이 물망에 오른다.

나상옥 전 조합장은 축산인들을 중심 으로 한 지지세력이 든든한 힘이다. 무안 재도약의 적임자임을 자임하며 바닥 민 심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김호산 대표는 '성공한 젊은 CEO'를 모토로 지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 다.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설립한 아태평화 재단 행정실장 등을 지냈다.

임재택 교수는 백제고·문태고 교장을 지낸 교육 전문가로, 학부모와 노인들에 게 인기다. /박정욱기자 jwpark@

/무안=임동현기자 jdh@kwangju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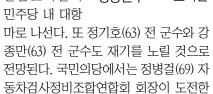
영광군수

재선 노린 현 군수에 도의원·전 군수 도전장

김 준 성 (65) 영광군수가 탄 탄한 입지를 바 탕으로 재선을 노린다. 이에 맞 서 이동권(56) 전남도의원이 민주당 내 대항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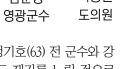


었다는 평이다. 미래전략산업인 e-모빌 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투자유치에 성과 를 냈고,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다. 특산품인 모싯잎 송편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도 이끌었 다. 특히 무소속으로 당선돼 총선을 앞두 고 복당, 이개호 의원 당선에 큰 도움을 줬다. 이 의원 측에서 '영광 때문에 당선 됐다'는 이야기를 공공연할 정도다. 현직 프리미엄에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다.

3선의 이동권 도의원은 풍부한 의정경 험 등 관록이 돋보인다. 강한 추진력을 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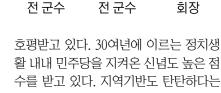






다. 김준성 군수는 무리없이 군정을 이끌

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점도



정기호

있다.

£ 80

정병걸

강종만

평이다.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김 군수에게 석 패했던 정기호 전 군수는 와신상담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. 폭 넓은 인맥을 기반 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, 탄탄한 지지 층은 최대 강점이다.

강종만 전 군수도 사면복권 여부에 따 라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. 강 전 군수는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대가 성 금품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.

국민의당에선 지난 총선 예비후보 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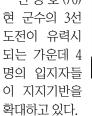
었던 정병걸 회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 /영광=김민석기자 mskim@

안병호 군수 3선 누가 막을지 주목

안병호(70) 현 군수의 3선 도전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4 명의 입지자들

함평군수





민주당에서 는 안 군수에 맞서 박래옥(70) 전 도의원 과 윤한수(61) 전 나비골농협 조합장이 경선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. 3선 의 축협 조합장을 지낸 뒤 지난 2010년 지 방선거에서 당선한 안 군수는 축산 농가 의 지지기반과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강 점을 내세우며 3선 도전의 의지를 다지고

있다. 안 군수는 민선 5·6기에서 지역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며 '풍요로운 함평, 행복한 군민' 실현에 앞 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 다만, 아들의 부정 보조금 지급 문제 등 잇단 비위·구 설수로 물의를 빚으면서 지역 민심이 내 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 목된다.

박 전 도의원은 재선의 도의원을 지낸 데다 함평 해보농협 조합장을 지낸 경험 을 기반으로 일찍부터 선거 준비에 나서









전농협조합장 전강진부군수 군의회 의장 면서 조직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다.

4선 농협 조합장을 지내고 농업·농촌 전문가를 자임하고 있는 윤 전 조합장은 인지도와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 다. 국민의당에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

에서 안 군수에 석패한 노두근(64) 전 강

진부군수와 이윤행(51) 함평군의회 의장

이 군수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. 노 전 부군수는 함평군과 강진군, 전남 도청 등에서 40여년 간 근무한 행정 전문 가로 꼽히고 있고,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'와신상담'하며 설욕을 벼르고 있 다. 이 의장은 지역 각종 행사 등에 얼굴

을 내미는 등 지역민심을 파고 들며 지지

기반을 확대하고 있다. / 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 /함평=황운학기자 hwang@

신안군수

왔다.

고길호 3선 도전에 전 군수 등 도전



고길호

신안군수

된다.



정연선

도의원

신안군수 선거는 고길호(72) 신안군수

가 3번째 도전에 나선다. 고 군수가 국민

의당 소속인 탓에 지역 명망가들이 민주

당 간판을 달고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

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은 섬별로 정치

고 군수는 섬이라는 지역 정서와 다르

게 전체적으로 고른 지지도를 받고 있다

는 분석이다. 고 군수는 재임기간 무난

하게 군정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

있다. 현직 프리미엄도 플러스 요인이

다. 다만 군수를 3번이나 하려고 한다는

국민의당 내에서는 고 군수에 맞서 정

연선(64) 전남도의원이 예선전을 치른

다. 정 의원은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

위원장을 맡는 등 충실한 의정활동으로

지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.

경계심과 고령이라는 점이 약점이다.

적 색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.





전 군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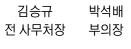


임흥빈

도의원







천장을 놓고 격돌한다. 2차례 신안군수를 지낸 박우량(62) 전 군수는 고 군수에 맞설 강력한 대항마로 꼽힌다. 오랜 기간 다져진 탄탄한 조직력

민주당에는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공

과 높은 인지도는 강점이다. 3선의 임흥빈(57) 전남도의원도 만만 찮은 저력을 지녔다는 평이다. 신안 최초 3선 도의원으로 풍부한 지방자치 경험 등 지역사회에 '준비된 일꾼'이란 인식

이 쌓일 만큼 관록이 돋보인다. 지난 선거에서 1900여표 차로 석패했 던 김승규(62) 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설욕을 노리고 있다. 김 전 사 무처장은 청와대 민정행정관을 지낸 행 정 전문가다. 박석배(54) 더불어민주당

정책위 부의장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 /신안=이상선기자 sslee@